



사랑이 있는 푸른 우리 마을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신 희 영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이사
서울대 의대 교수

중구 다동, 동대문구 장안 1동, 중구 을지로 6가, 중구 충무로 4가...

내 집을 마련하고 지난 전셋집 주소를 되돌아보는 심정으로 재단의 고난했던 시작을 돌이켜 봅니다. 정말 아무 것도 없이 오직 이 땅의 소아암 어린이들과 가족들에게 희망과 용기가 필요하다는 사명감 하나로 시작하였습니다. 1991년 출범 당시에는 백혈병을 비롯한 소아암은 불치의 병으로 인식되어 있었고, 감당할 수 없는 병원비 때문에 진단명만 듣고 하얗게 질려 어린 생명을 포기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사무실도 없어 남의 오피스텔 한쪽에서 더부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아이의 병명조차 이웃에게 알려 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부모님들이 많아 '백혈병어린이후원회'라는 공식명칭 대신에 '푸른우리마을'이라는 또 다른 이름을 사용해야했습니다. '이 어둠의 긴 터널의 끝이 과연 있는 걸까'하며 좌절과 실의에 빠진 부모님들에게 희망은 너무나 간절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첫 사업이 부모모임을 통한 교육이었습니다. 1992년 2월 26일 첫 부모모임은 눈물로 얼룩졌습니다. 병실에 입원하고 있던 아이들까지 링거병을 꿋고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임 마지막에 초청된 완치자 강이의 건강한 모습과 격려로 행사는 힘찬 박수와 환한 미소로 끝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부모모임은 소아암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헌혈증서 지원사업 또한 이 시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육군 맹호부대, 비룡부대, 제2기갑여단 등 군장병들이 모이준 헌혈증서들은 소아암 어린이 가족들에게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때 인연을 맺은 강창오님은 10년 동안 한결같이 재단을 후원해주고 계십니다. 그동안 각 기업체, 단체, 개인들로부터 재단에 기증된 헌혈증서는 약 67,000장으로 소아암 어린이들의 치료에 소중히 쓰여지고 있습니다.

또 소아암 어린이들의 존재와 제때에 충분한 치료를 받으면 완치될 수 있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회보 '사랑이 있는 푸른우리마을'을 발간하였습니다.

첫 부모모임이 끝나고 한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셨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는 상태에서 몹시 난감하였지만 럭키화재(지금의 LG화재)여직원회와 자매결연을 맺고 매달 10만원씩 후원하여 주기로 하였습니다. 이 작은 시작이 현재 재단의 외래진료비 지원사업의 모태가 되어 지금은 기업은행 노동조합, 하나은행 노동조합, 에스콰이어, 행복한 사람들 등 여러 단체가 매달 70여명의 어린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1992년 여름에 열린 '제1회 가족캠프'는 소아암 어린이, 가족, 의료진, 자원봉사자들이 하나가 되고, 좌절하고 지쳐있는 가족들이 힘과 용기를 되찾을 수 있었던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이제 가족캠프는 병원별로 열리는 연례행사가 되었습니다.

1992년 12월 23일, 창립 1주년을 기념하여 마련한 '백혈병어린이잔치'는 영원히 잊을 수 없는 행사였습니다. 이날 완치메달을 받은 45명의 완치어린이뿐만 아니라 치료중인 소아암 어린이와 그 가족들, 후원자들이 함께 기쁨을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완치잔치가 끝나고 한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항상 기억납니다.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은 이렇게 시작하였습니다. (다음호에 계속)

남편의 일기

2001년 11월 30일

고마우신 우리 여보와 사랑하는 현이에게..

여보! 요즘 서울 날씨는 어떨소? 무척이나 춥지? 현이는 잘 있지? 아마 내가 당신보다 현이를 더 사랑하는 것 같소. 12월 3일은 우리 현이의 두 번째 돌이요. 당신도 잘 알고 있을 거요.

당신과 나, 너무나 어렵게 결혼해 우리 현이를 낳고 그동안의 불화를 떨치며 살았잖소.

너무 힘들게 생긴 우리 현이. 너무나 예쁜 우리 현이 ♡

여보! 너무 고생이 많소. 난 지금 부산에 내려와 있지만

여보와 우리 현이 생각에 하루도 눈물이 마를 날이 없소.

지금 이 시간 우리 현이는 뭐하고 있소? 잘 자고 있겠지.

여보! 너무 보고싶소. 우리 현이! 너무 사랑한다!

여보! 너무 고마워요!



2002년 2월 7일

여보! 정말 미안하오. 어제 MP3 도둑맞았소.

너무나 사랑하는 현이 엄마. 서방이 너무 미안하구려.

그대에게 너무나 미안하구려.

잠시 한눈 판 사이에 그 조그만걸 들고 갔구려.

오호. 통제라. 여보 너무나 미안하오.

그대 좋아하는 터보의 노래도 들려주지 못하고

서방 좋아하는 힙합만 듣다가 잃어버렸으니.

여보의 소원인 "김종국"의 곡이라도

실컷 듣게 해 주었다면 이다지 억울하진 않을텐데...

하지만 이젠 어떡하겠소. 서방을 이해하소.

서방이 "부산-서울" 왔다갔다하며 힙합으로 아픔을 달렸던 것도

이해해주면 하는 소망이 있네.

여보 사랑해. 정말 사랑해. 우리 현이는 더 사랑해.

여보! 너무나 고마워.

♡ 꼬마숙녀 현이(3세)는 뇌종양으로 진단받고, 현재 서울대학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2002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최지혜
 의정부시 장암동사무소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 2002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1. 소득평가액 기준

가 구 규 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소득평가액(월/만원)	35	57	79	99	113	127

※ 7인이상가구는 1인 증가시마다 기준이 14만원씩 증가(7인 141만원, 8인 155만원 등)

2. 재산 기준

가 구 규 모	1~2인가구	3~4인가구	5인이상가구
재 산 가 액	3,300만원	3,600만원	4,000만원

※ 재산실물기준 : 예외가 아닌 한, 다음 가구는 제외됩니다.

- ① 주택면적(전용) 기준 : 자가가구는 15평, 임차가구는 20평 초과가구
- ② 농지면적 기준 : 시도별 농가구당 평균경지면적(1~1.6ha) 초과가구
- ③ 1,500cc미만 생업용 및 2000cc미만 장애인사용 차량외 승용차 소유자

3.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위의 모든 조건을 만족하여 수급자가 되었을 경우,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자활급여와 해산·장제급여를 받게 됩니다.

☞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거주지역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나열한 급여종류 중 '의료급여'는 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부담함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계층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넓혀주는 제도입니다.

의료급여는 1종, 2종 두가지 종류로 나누어지고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의료급여 1종

-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 18세 미만 61세 이상의 수급자
 - 18세 이상 60세 이하의 수급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1,2급 장애인)
 - 질병·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2월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자
 - 임신부
 - 공익근무요원 등 법률상 의무를 이행중인 자 등
 - 위에 해당하지 않는 수급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 미취학 자녀 또는 질병·부상 또는 장애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이나 치매 등으로 특히 보호가 필요한 가구원을 양육·간병 또는 보호하는 수급자(가구별로 1인에 한하되, 양육·간병 또는 보호를 할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이 있거나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보육·간병 또는 보호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는 제외)
 -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재학중인 자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직업재활 실시기관 및 동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실시하는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에 참가하고 있는 장애인
- ※의료급여 1종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구원 전원이 근로능력이 없음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진단서, 재학증명서 등)를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만 합니다.

의료급여 2종

- 의료급여 1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1종의 경우 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 전액을 국가로부터 지원받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이 없고, 2종은 본인부담금의 20%를 부담하시면 됩니다.

의료급여의 특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들을 위한 다양한 특례제도가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의료급여이므로 다른 특례제도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의료급여 특례에 대해서만 설명하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례제도는 다른 급여에서는 제외가 되나 고액의 치료비를 요하는 대상자에 한하여 의료급여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 소득에서 6개월이상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의료비를 공제하면 수급자 선정요건에 해당하나, 수급자 선정 이후에는 공제 대상 지출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평가액 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에 대해 2002년까지 의료급여특례대상자로 선정
- 이 중 만성·희귀질환(2002년도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기준 참조-보건복지부) 등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자가 있는 가구의 경우에는 의료급여 1종에 해당되고 그 외의 가구는 2종에 해당됩니다. 백혈병의 경우 만성·희귀질환으로 분류되므로 의료급여 1종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 특례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된 의료비 영수증과 진단서, 소득증빙자료 등을 지참하신 후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그녀는 예뻐다

그녀를 처음 본 것은 작년 서울중앙병원 완치진치에서였다. 까만 생머리에 허얀 얼굴, 가녀린 몸매에 단아한 옷차림의 그녀는 조용히 무대에 올랐다. “저도 몇 년 전에는 여러분처럼 병원에서 오랫동안 치료를 받았답니다. 지금은 이렇게 건강하게 완치되어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두 곡의 노래를 부른 후 무대를 내려왔다.

♥ 할머니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랑 같이 살았어요. 할머니 생각만 하면 지금도 애뜻하죠. 바쁜 엄마를 대신해서 학교도 데려다 주시고, 도시락도 싸주셨죠. 제가 초등학교 때는 무용을 했거든요. 무용연습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할머니에게 짜증내도 다 받아주셨죠. 할머니는 아들인 오빠보다도 저를 더 많이 챙겨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 1학년 입학하자마자 선모육종이라는 진단을 받고, 힘든 병원생활을 시작하면서 할머니는 많이 약해지셨죠. 제가 항암치료 받으면서 고생하는 모습을 더 이상 못 보시겠다며 결국 일본에 있는 친척집으로 가셨어요. 제가 고통을 참아가며 치료를 받는 동안은 한국에 있는 것조차 견디기 힘들셨나봐요.

그런 할머니를 작년에 일본에서 만났어요. 6년 만에 처음으로... '어린이에게 새 생명' 방송 중 일본에 갈 일이 있었거든요. 운이 좋게 저에게도 기회가 와서 난생처음 해외여행이란 것을 해보았고, 또 보고싶던 할머니도 뵈 수 있었어요. 할머니가 숙소로 찾아오셨는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부둥켜안고 한참동안 울기만 했어요. 할머니는 저의 건강해진 모습을 처음 보신 거예요. 얼마나 기뻐하시던지... 어쩌면 할머니에게 건강한 저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항암치료를 견뎌낼 수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 얼굴약, 배아픈약

중학교 1학년 때 치료를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저는 외모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런데 머리를 모두 밀어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머리를 밀었죠. 일주일동안은 거울도 안 봤어요. 그러다가 화장실에서 얼떨결에 제 모습을 봐버린 거예요. 며칠동안 충격에 휩싸여 계속 울기만 하고, 밥도 안 먹었어요. 진짜 너무 충격이었거든요. নিজ에는 다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받아들여야 한다! 있는 그대로...' 속으로 되뇌었죠.



항암치료하면서 지금도 기억하면 끔찍했던 건 두 가지 약으로 인한 부작용이었어요.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고, 그 당시 '얼굴약', '배아픈약'으로 불렸죠. '얼굴약'만 맞으면 3일 동안 얼굴의 피부가 벗겨지는 것처럼 정말 아팠어요. '배아픈약'은 말 그대로 중일 배가 아팠죠. 이럴 때에는 자는 것이 최고예요. 진통제를 잔뜩 맞고 그냥 자는 거죠. 자는 동안은 잊을 수 있으니까...



김진실

1983년 12월 14일 생
1996년 중학교 1학년 때 선모육종 진단
1997년 중학교 2학년 때 치료종결
2002년 하남고등학교 졸업
현 재 실용음악공부 중

♥ 음악은 나의 삶의 목표

지루한 병원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음악을 많이 듣게 되었죠.
그러면서 음악의 매력을 알게 되고 이것이 바로 나의 길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이때까지는 막연히 동경만 할 뿐이었죠. 고3때 우연히 실용음악을 전공했던 분을 알게 되었어요. 제 목소리를 들어보시더니 조금만 연습하면 좋은 목소리라고 하더라고요. 그 한마디에 저는 목표를 정했죠.
실용음악과를 가기 위해 레슨도 받고, 혼자서도 연습하고... 제가 작곡한 노래를 불러서 CD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거든요? 나중에 기회 되면 들려드릴게요.
하지만 올해 대학에 떨어졌답니다.
물론 실망하지는 않아요.
그만큼 준비기간도 짧았으니까요.



♥ 감사

저는 제가 아팠었던 2년 간의 경험을 감사하게 생각해요.
제가 커다란 힘이 되는 것도 아니고, 자원봉사활동을 활발히 하는 것도 아니지만, 치료가 끝나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는 저의 모습으로 인해 희망을 가지는 분들을 봤거든요. 한번은 10살짜리 여자아이가 병원생활을 너무 힘들어한다고 해서 찾아간 적이 있었어요. 그 아이는 저를 보자마자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좋은 말을 해준 것도 아니었지만, 그 아이는 제 모습 자체를 보고 행복해 하더라고요. 비록 하늘나라로 갔지만, 저를 보고 난 후부터 치료도 잘 받고 굉장히 밝게 생활했다고 해요. 너무 감사했죠.
전 아무것도 아닌데...
과거의 경험으로 인해 작은 일에도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알게 되었죠.
지금도 저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면 달려갈 테니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심터에서는...



서울 우체국 헌사랑의집

출산휴가 중이신 전성미 선생님을 대신하여 헌사랑의집 출근을 한 지 이틀째였을까요?

“민규”라는 아이를 만났습니다. 어린애답지 않는 그윽한 눈이 인상적인 아이였어요. 처음에 이 아이가 저에게 한 말은 “누나! 보듬어 주라이!”. 사투리가 섞인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민규는 “누나, 보듬어 주라이!”라고 다시 한번 졸랐습니다. 지금은 민규를 살포시 안아주지요. 유난히 막내티를 내는 민규는 늘 엄마 품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그런 민규는 꼭 작은 캥거루 같아요.

민규와 작은 약속을 했습니다.

첫째, 누나라는 말 대신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쓰기로,

제가 한 아이의 엄마라는 사실을 알고부터는 결국(?)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쓰고 있습니다.

둘째, 사무실에 들어올 때에는 “(똑똑) 저, 들어가도 돼요?”라고 물어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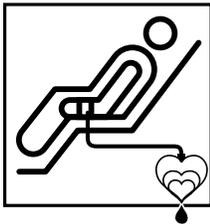
늘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한 민규는 함께 놀아달라며 사무실의 문턱이 닳도록 넘나들거든요.

마지막으로 민규가 퇴소한 후에 민규네 집으로 전화하기. 민규는 손수 자기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제 수첩에 꽂아 놓았습니다.

아직은 조금 낯선 헌사랑의집 출근을 하는 저를 기다렸다가 “선생님은 참 이쁘다이!”라고 말하면서 수줍은 미소를 보이는 민규. 이식 후, 부작용으로 부어오른 얼굴을 하고도 천진한 웃음을 잃지 않는 민규....

민규는 제가 헌사랑의 집에서 만난 첫번째 친구입니다. <사회복지사 정현순>

광주 우체국 헌사랑의집



얼마 전 전남경찰기동대 82중대에서 기쁘고, 고마운 소식을 전해 왔습니다.

혈소판 현혈과 관련하여 광주 헌사랑의 집과 자매결연을 맺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그동안에도 요청이 있을 때마다 혈소판 현혈자를 구해주셨는데,

자매결연을 맺고 좀더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도움을 실천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지금은 비록 82중대 한곳과 자매결연을 맺지만 앞으로는 다른 중대에도 자매결연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는 약속도 하셨습니다.

♥ 자매결연식은 3월 28일(목) 오후 3시에 광주 헌사랑의집에서 열렸습니다. ♥

<담당 사회복지사 정 옥>

부산 우체국 훈 사랑의집



지난 겨울, 날씨는 추웠지만 부산 훈 사랑의집에서는 즐거운 행사들이 있었답니다.
12월에는 '롯데지아엔트구단 팬 사인회 & 고신의료원의 완치잔치'가 있었죠. 비록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잘 모르지만 야구선수들을 만나는 것 자체에 아이들은 무척이나 설레어 했습니다. 선수들과 함께 춤도 추고 노래도 하면서 아이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폈습니다.
또 1월에는 동아대학교병원에서 치료중인 아이들과 함께 경주로 캠프를 다녀왔답니다. 총 150명이나 되는 많은 인원이 놀이기구도 타고, 레크리에이션도 하고, 프로그램도 하고....
너무도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레크리에이션시간에는 상품에 눈이 어두운 우리의 다섯 봉사자들의 활약상이 대단했지요. 모두들 탈블레이드를 위해 엉덩이춤에서부터 쿡따리 춤까지... 아마도 못 보신 분들은 이해하지 못하실 걸요? ^^ 참, 캠프기간내내 우리 아이들을 돌봐주신 대학생 봉사동아리 '도리도리'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담당 사회복지사 박미주〉

알리안츠 제일생명의집



넵! 집 잘 보고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월부터 새롭게 제일생명의집을 담당하게 된 조혜린입니다.
조금은 긴장되지만, 예쁜 친구들과 어머님들과 가까워질 수 있게 되어 설레입니다.
며칠 전 외래치료를 받기 위해 잠시 제일생명의집에 머물렀던 세살박이 친구가 제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집 잘 보이소~" 그 꼬마친구의 말을 통해 저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항상 내 집같이 편안한 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담당 사회복지사 조혜린〉

♡심터 후원회원 모집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쉼터와 함께 할 따뜻한 마음의 후원회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후원금액 월1천원(어린이회원) 월5천원 월1만원 월2만원 년회원(5만원 이상)

※ 지로 및 자동이체를 통해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및 문의 :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사무국 (02) 766-7671~2 우체국 훈 사랑의집(서울) (02) 704-8310 우체국 훈 사랑의집(광주) (062) 234-5528
우체국 훈 사랑의집(부산) (051) 244-7677 우체국 훈 사랑의집(대구) (053) 253-7671

♡우체국 훈 사랑의집 신규후원자

◆ 우체국 훈 사랑의집 신규 후원자 (2001. 12. 11. - 2002. 2. 28.)

· 서울 : 김정희 이은혜 전수진 정희숙 · 광주 : 송명희 정희선 · 부산 : 김명옥 신행연 이순복 · 대구 : -

큰 사람들

안녕하세요. ㅎ 놀타리입니다.

'ㅎ 놀타리'란 이름을 아직 생소하게 여기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되네요.
저희 ㅎ 놀타리는 매주 거리 모금공연을 통해 부산지역 소아암 어린이들에게 작은 힘을 보태고자 하는 언더그라운드 통기타 가수들의 모임입니다.

노래와 함께 백혈병을 일반인들에게 알리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작년 한해동안 부산 초읍동에 위치한 "어린이 대공원"에서
매주 일요일 (오후 1시~5시) 거리공연을 벌여 왔으며,
따뜻한 마음을 가진 많은 분들의 정성들을
우리 친구들에게 전달해 왔습니다.

지난 겨울, 날씨 탓에 거리공연을 쉬는 동안 ㅎ 놀타리의 1집 앨범을 준비하였고,
곧 ㅎ 놀타리 홈페이지(www.2ngel.com)도 문을 열 계획입니다.

3월 17일, 2002년의 첫 거리공연이 시작됩니다.
항상 해 온 공연이지만 그 설레임은 변함이 없답니다.
많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날이 기다려집니다.

작년 한 해 ㅎ 놀타리를 관심있게 지켜봐 주신 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해야 할 몫이 더 많이 남아 있는 ㅎ 놀타리이기에
올해는 어린이 대공원뿐만 아니라 더 많은 곳에서
ㅎ 놀타리의 모습을 보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뛰어 놀며 환한 웃음을 지을 수 있는 그 날까지
ㅎ 놀타리의 노래는 계속될 것입니다.



'ㅎ 놀타리'는 '큰 울타리'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ㅎ 놀타리 여러분! 앞으로도 쭉~욱 우리 소아암 어린이들의 울타리가 되어 주세요.



♥ 한뜻후원자 소식

감 사 합 니 다.

신규회원 소개(2001. 12. 11. ~ 2002. 2. 28.)

강유숙 곽준성 권해구 권형규 김기혁 김동인 김두일 김미현 김민석 김보건 김상석 김선미 김선화 김성영 김소현
 김우겸 김항미 나광균 문영훈 박계병 박상미 박소정 박정자 박혜영 방주영 서병삼 서유정 서호진 손서영 손주원
 송선주 신동석 아람희 엄경문 오유록 오현승 유주란 윤규진 윤정호 이경민 이경아 이민정 이범열 이이만 이주연
 이호영 이훈풍 이희수 임지연 전종수 전해진 정현숙 조애리 조영옥 조준국 진성현 차세란 최용해 최유미 최윤정
 한미나 홍성주

한뜻 후원자는 소아암어린이들을 위한 정서·정보지원사업을 지원하는 후원자입니다.

금액은 제한 없으며 지로와 자동이체(국민, 조흥, 농협, 기업은행, 우체국) 방법으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재단사무국에서 받습니다. (☎ 02-766-7671 ~2)

※ 한뜻소식란에 실을 한뜻후원자님들의 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편지, 시 등 형식 및 소재 자유)

♥ 특별후원환아 소개 (2001. 12. 1.- 2002. 2. 28.)

2001년 12월

(주)삼성전자 6,760,000

조민희(급성골수성백혈병, 삼성서울병원)

(주)에스콰이어 9,500,000

신다혜(재생불량성빈혈, 동아대학병원)

유지수(신경모세포종, 삼성서울병원)

롯데월드 19,000,000

이두리(급성혼합성백혈병, 이대목동병원)

임민지(신경모세포종, 서울대학병원)

동아마라톤 2,500,000

김경민(급성림프구성백혈병, 부산대학병원)

박대열(급성골수성백혈병, 동아대학병원)

신연호(골육종, 고신의료원)

안성희(신경모세포종, 부산대학병원)

최은혜(신경모세포종, 동아대학병원)

2002년 1월

박세리(삼성전자) 33,000,000

김화량(신경모세포종, 서울대학병원)

박현종(만성골수성백혈병, 아주대학병원)

석도경(신경모세포종, 삼성서울병원)

여용기(급성골수성백혈병, 서울대학병원)

이창엽(급성골수성백혈병, 여의도성모병원)

홍기혁(급성림프구성백혈병, 여의도성모병원)

한국장애인재활협회 · 현대홈쇼핑 2,000,000

신 현(뇌종양, 서울대학병원)

사랑이 모이는 곳



박세리 선수(삼성전자)는 "2001 코리아스포츠대상"에서 받은 상금 1억원 중 5천만원을 소아암 어린이들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지난 1월 4일 우리 재단으로 기탁했습니다. 후원금은 소아암 어린이들의 골수이식비용으로 소중히 사용되었습니다.

비하인드 스토리 ... 이날의 주인공이었던 6명의 꼬마친구들보다 어머니들이 더 신나고 들떠있었습니다. 왜냐구요? 우리 친구들은 박세리 선수가 누구인지 몰랐으니까요. 어머니들은 유명인사를 가까이에서 봤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하루종일 즐거워 하셨답니다.



AHC, Korea(대표이사 김성진)에서 주최하고 (주)웰라코리아(사장 데트레프 놀덴)에서 후원하는 헤어쇼 'hair innovations korea 2002'가 2월 24일 63빌딩 컨벤션 센터에서 성황리에 진행되었습니다. 3시간동안 진행된 헤어쇼 행사에는 약 2천명의 관객이 참석하여 뜨거운 열기를 느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또한 행사의 수익금은 소아암 어린이들을 위해 사용되어 더욱더 의미있는 행사였답니다.

기업은행 노동조합 대위원회(1월 18일)에 참석한 송상현 재단 이사장은 기업은행 노동조합(위원장 : 지석중)에 '사랑의 메아리'(팽가리 감사패)를 전달, 소아암 어린이와 가족들을 대표하여 그 동안의 후원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1995년부터 소아암 어린이들에 대한 외래진료비 지원활동을 지속해 오고 있는 기업은행 노동조합은 2001년도에는 총 4,290만원의 외래진료비를 지원해 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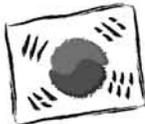
알리안츠제일생명(사장 미셸 캥테아뉴)의 트레버 달지엘 홍보담당이사과 홍보부 직원들은 지난 12월 12일 '알리안츠제일생명의집'을 방문, 소아암 어린이들과 함께 트리장식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 이 날 씬터 후원금 1,200만원을 함께 기탁해 주셨습니다.

행복한 사람들(모임장 : 김 옥)이 지난 2월부터 새생명통장(외래진료비 지원사업)의 후원 단체가 되셨습니다. 현재 '행복한 사람들'은 15명의 소아암 어린이들에게 매월 10만원씩 외래진료비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안산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행복한 사람들'은 1990년부터 소아암 어린이를 위한 노래공연을 시작하여 그동안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소아암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위로공연을 지속적으로 펼쳐온 자원봉사자모임입니다.

만 세 운 동

승리의 기쁨을 완치의 기쁨으로

KOREA 만세! 백혈병어린이 만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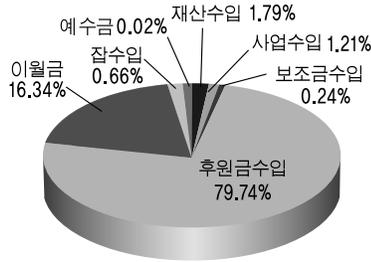
2002년 월드컵! 전세계 축제의 한마당! 백혈병·소아암 어린이들도 함께 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백혈병·소아암과 힘겨운 투쟁을 하고 있는 많은 어린이들이 여러분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 승리의 기쁨이 백혈병·소아암 어린이의 완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이들의 수호투사가 되어주시시오!

2001년 사업보고서

- 이 결산보고는 심터를 포함한 재단전체의 결산보고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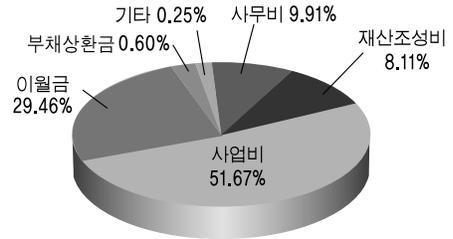
수
입



(단위 : 원)

재산수입	36,344,201	이월금	332,591,140
사업수입	24,645,500	잡수입	13,433,361
보조금수입	4,831,000	예수금	626,190
후원금수입	1,623,111,327	합계	2,035,582,719

지
출



(단위 : 원)

사무비	201,697,552	부채상환금	12,272,450
재산조성비	164,989,520	기타	5,138,964
사업비	1,051,734,485		
이월금	599,749,748	합계	2,035,582,719

구분	사업명				비율(%)	구분	사업명			
	사업명	사업실적	사업비(원)	비율(%)			사업명	사업실적	사업비(원)	비율(%)
경제적 지원	천사백이식비 지원	28(명)	166,047,620	15.79	정서적 지원	입원환아집단활동	-	8,688,130	0.83	
	입원진료비 지원	114(명)	448,327,720	42.63		캠프	-	9,914,682	0.94	
	외래진료비 지원	91(명)	58,700,000	5.58		가족행사	-	2,369,540	0.22	
	헌혈증 지원	5,145(매)	68,428,500	6.51		기획 사업	직원교육	-	678,500	0.06
	가발 지원	40(명)	28,000,000	2.66	홍보사업		-	1,508,060	0.14	
	부모회 지원	-	47,442,600	4.51	이식비후원회원관리		4,100(명)	2,922,880	0.28	
	지정후원	-	144,182,650	13.71	운영비후원회원관리		400(명)	1,367,200	0.13	
	추진경비	-	779,930	0.07	시설비후원회원관리	80(명)	598,490	0.06		
정보 지원	홈페이지운영	-	7,019,360	0.67	유관단체 관리	-	464,200	0.04		
	소식지 발간	4회 /32,600(부)	4,676,300	0.44	자원봉사 관리	-	612,620	0.06		
	소책자 발간	4회 /4,800(부)	5,223,933	0.50	시설운영사업	시설운영사업비	쉼터(5개소)	18,143,480	1.73	
	상담	313(사례)	1,268,090	0.12	연구지원사업	연구지원사업비	-	24,370,000	2.32	
					합계		1,051,734,485	100	100	

* 경제적 지원 중 가발지원과 헌혈증지원 현황은 현물을 현금으로 환산한 것임

천사백 운동 지원환아

천사백후원금을 지원받은 어린이들을 소개합니다.

김민지(여/만 1세)
급성골수성백혈병
서울대학병원
2002년 2월
자가조혈모세포이식 시행



김동윤(남/만 6세)
급성골수성백혈병 / 대구파티마의료원
2002년 1월 제대혈이식 시행



정해주(여/만 2세)
급성림프구성백혈병
여의도성모병원
2002년 1월
타인골수이식 시행



홍소현(여/만 2세)
내배엽성종양
여의도성모병원
2002년 2월
자가조혈모세포이식 시행



이용호(남/만 7세)
신경모세포종 / 서울대학병원
2002년 4월 자가조혈모세포이식 예정



김주란(여/만 2세)
급성골수성백혈병
여의도성모병원
2002년 2월
제대혈이식 시행



이소임(여/만 8세)
재생불량성빈혈
고신의료원
2002년 4월
동종골수이식 예정



김신영(남/만 10세)
비호지킨림프종
삼성서울병원
2002년 3월
자가조혈모세포이식 예정



이수형(남/만 6세)
재생불량성빈혈 / 삼성서울병원
2002년 4월 동종골수이식 예정



◆**천사백운동 참여현황 (2002. 2. 28. 현재)**

참여후원자 : 3,085명
구 좌 수 : 13,075구좌

◆**천사 같은 이웃을 소개합니다.**

(2001. 12. 1. ~ 2002. 2. 28.까지 처음으로 후원금을 입금하신 분들)

예금주 : (재)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타은행도 동일)

경남은행(514-07-0175564)

김성미

광주은행(200-107-315315)

국민은행(031-01-0414-356)

강은선 김경화 김민영 박명숙 백찬주 이미순 최유미 홍인숙

기업은행(090-000260-04-022)

농협(029-01-170940)

박창명 손민기 손성훈 손채연 이은경 이정경 임승인 (주)에피토미

대구은행(004-05-179828-001)

노홍선 류주향 장익모

부산은행(070-01-021379-8)

이경숙

서울은행(16508-2945601)

신한은행(394-01-000694)

권민성 조문아 최미숙 한춘연

외환은행(141-22-00799-6)

변미숙 정인수

우체국(012989-01-003313)

고동주 이민옥 장묘인

제일은행(225-20-385050)

조흥은행(367-01-192434)

김선미 김준희 유주연 황찬구

주택은행(488401-01-001485)

이현주

하나은행(144-121835-00105)

송정미

한미은행(100-59711-251)

강신희

한빛은행(112-04-112571)

권효정 민철기 신수진 일원희 조유진

지 로(6981440)

곽준성 김기배 김민선 김소현 김영주 김희숙 나소연 박태현

송상만 신호열 안은정 양윤주 염민혁 이민희 이상명 이재명

이주석 장은숙 정선영 정은진 정태철 조 용 차혜림 허영롱

황우경 황지수

주소 또는 은행, 구좌수가 변경되신 후원자께서는
재단 사무국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사랑의 모음터

◆ 사랑의 헌혈증서 (2001. 12. 1. ~ 2002. 2. 28.)

신세계(2,941) 신용보증기금(11) 오곡초등학교(50) 청소년봉사단"아랑회"(100)
 군산중앙여고(18) 벼룩시장(810) Dream Factory(244)
 강금갑(26) 권진욱(3) 김남구(5) 김영준(5) 김은영(2) 김정진(150) 김준희(5)
 유석남(3) 이근희(14) 이상수(40) 이일민(4) 장희정(5) 조혜진(1) 주순옥(2)
 한상덕(19) 한춘연(8) 현하욱(12) 홍성노(164) 故문태준(94) 故이보경(83)

◆ 특별 후원금

2001년 12월 광희중학교 622,580 구의교회 100,000 구호웅 5,000,000 문다순 100,000 부산은행 100,000
 알리안츠제일생명 12,000,000 아이원인베스코프 5,000,000 웰라코리아 2,000,000
 유후례 100,000 이성원,이윤진 500,000 이연심 100,000 전남대병원 1,000,000 최병운 1,000,000
 2002년 1월 고웅석 100,000 김기연 150,000 김명옥 130,000 김영미 1,000,000 부산은행 100,000
 부산체신청 500,000 비엠퍼시픽 700,000
 2월 구의교회 200,000 기독교대한감리회 500,000 김일규 100,000 보건복지부 100,000
 부산은행 100,000 송상현 2,000,000 통일초등학교 606,400

◆ 후원물품 (2001. 12. 1. ~ 2002. 2. 28.)

박찬중 휴지(48), 세탁비누(32), 섬유유연제(9), 세제(3), 주방세제(12) **서울체신청** 치약(43), 비누(34)
삼성생명동작지점 크리스마스트리장식 **손민기** 밤비 **신지현** 크리스마스트리장식, 인형(15), 의류(15)
故문태준 멸균탈지면봉(12박스) 멸균탈지거즈(1박스) **고신사랑회** 카드·춧대 **故이보경** 김치, 쌀
구형정 굴(1박스) **김경미** 굴(1박스) **김명옥** 장난감 **김미정** 그릇(11), 수저(3) **둘리나라** 치약(108)
김성겸 쌀 **김윤조** 김치 **김정숙** 녹차바다사워(5) **김해인** 쌀 **최재혁** 컵(10) **김상렬** 김치
김태연 커피믹스(30) **동아대병원** 크리스마스트리장식, 매트 **정신양** 김치 **박시용** 쌀(2박스)
박재우 김치 **하이마트주월점** 농산물상품권 **윤상현** 압력밥솥(1), 쌀 **이윤혜** 털모자(8), 양말(6)
이관호 김치, **고추장** **임연섭** 김치 **최영석** 표고버섯, 김, 치약(20), 조기(25) **김세환** 라면(1박스)
박진영 쌀 라면(1박스), 쌀

사랑터(봉사모임)에서는 알리안츠제일생명의집에 머무르는 어린이들과 어머님들을 위해 매일 식료품을 후원해주고 계십니다.

◆ 물품 후원 안내

우리 재단은 비품구입비를 절약하기 위해 사무국과 재단이 운영하는 신타에 필요한 물품을 기증 또는 무상 기탁을 받고 있습니다. 보내주시는 기증품 하나 하나는 큰 도움이 됩니다.

2002년 봄호는 **W 한국와이어스** 에서 제작지원해주셨습니다.

발행인 / 송상현 편집인 / 안효섭 발행처 /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주소 / 110-460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114-3번지 전화 / (02)766-7671~3 팩스 / (02)766-7674
 예금구좌 / 310-03-002396(조흥은행) 6981440(은행지료) 012989-01-003327(우체국)
 090-000260-04-015(기업은행) 001-01-2353-890(국민은행) 029-01-176943(농협)
 예금주 / (재)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